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옥 배재대 교수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논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국이 냉각되면서 정치권은 선거구 확정에 대한 논의와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선거구 확정 작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표의 등가성 원칙, 그리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내는가에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지역구 간 최대 편차가 3 : 1에서 2 : 1로 줄게 되었는데, 이러한 판결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거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

농촌과 지방 대표성 보장을 위한 현실적 방안

거구를 확정할 경우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 어떤 방안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에, 각 지역 간에, 그리고 각 정당 간에 정치적 계산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난맥을 해결하는 가장 명쾌한 해결책은 의원 정수의 확대에 있으나, 주요 정당들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의원 정수가 확대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 뻔하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의 의석을 늘리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훼손된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개헌을 통한 미국식 상원제의 도입 등 지방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현실화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선거구 확정 논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계에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질 기미가 없다. 상원제 도입 방안은 개헌이라는 더 큰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향후 보다 제도화된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방의 목소리 키워기가 될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 자치단체장이다. 이들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방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물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나름대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도권에 반해서 지방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경우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정치적으로 힘이 강한 시도

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치적 입장의 차이(소속 정당의 차이 포함), 개인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야망 등으로 인해 이들 간에도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들 간에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운 근본 이유는 소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서로 힘을 합해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항하여 지방분권을 가속화하는 등 지방 전체의 이익과 대표성을 도모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잘 보여서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과 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방 전체의 이익 도모는 어려워진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력과 적극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지방 대표성 제고는 임시방편적인 방안일 뿐이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협력의 경험을 통해 정치적 힘을 결집해야만, 향후 보다 제도화된 지방 대표성 보장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는 결국 힘이 중요하며, 힘은 합해야 커진다는 단순한 명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료칼럼



강채미 백담나무한의원 원장

서양에서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엘 잘 가지 않고 집에서 레몬차를 뜨겁게 마시거나 폭 쉬고 땀을 내는 정도로 자가치료를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한약과 거의 유사한 허브티같은 대체 의학이 감기치료에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 감기에 대한 치료는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치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통증이 있으면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식인데, 증상의 정도나 종류에 상관없이 꼬박 1주일이나 지나야 낫게 특징이다. 걸리지 않게 최선이지만, 걸렸나 하더라도 최대한 잘 관리

감기 예방 상식

하는게 중요하겠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발열, 오한, 두통, 기침, 콧물 등 여러 증상을 가진 질환이다. 바이러스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성이 강해지므로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그 당시 체력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고 아닌 사람들은 심한 감기 증상으로 고생하게 된다.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는 요즘같은 시기에는 인체가 그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있는 시간대에는 반드시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입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환경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머리가 아프거나 오한이 들면서 콧물이 줄거나 등 초기 감기 증세가 있을 때에는 뜨거운 차를 계속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약간의 땀이 나게 해주는데 좋다.

한의학에서 감기는 풍, 한이라는 외부의 나쁜 기운이 몸에 들어와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 풍, 한 사기는 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발한법을 초기에 쓰는 것이다.

몸도 많이 아프면서 목까지 같이 아플 정도로 초기 증상부터 중증이라면 한약 처방을 받는게 좋다. 한의원에서도 보험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에 맞춘 보험 한약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한다면 쉽게 감기 증상을 이겨낼 수 있다.

목감기부터 시작해서 열이 많이 나고 침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편도가 붓는다면 이때는 염증이 급성으로 심하게 온 경우이므로 양약인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게 좋다.

또 비타민과 수분 섭취량을 대량으로 늘리면 감기 예방과 증상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레몬차나, 유자차, 생강차 등 비타민 함유량이 많은 차를 따끈하게 자주 마시고 온수를 수시로 마셔 탈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감기에 걸리면 소화기도 전반적으로 기

능이 약화된다. 감기에 걸렸을 때 너무 뜨겁고 단단한 음식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쉽게 체하거나 장염 유사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감기에 걸렸을 때와 회복기에는 소화되기 쉽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동의보감에는 증상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되 그 복용법까지 상세히 나와있다. 약을 복용한 후에는 미음을 뜨겁게 한사발 먹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온 채 땀을 약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예이다. 이것은 약물치료 뿐 아니라 평소 생활습관 및 사후관리까지도 치료의 연장선으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복용 후 다시 과로를 하고 찬바람을 맞게 되면 감기는 일주일로 끝날지 몰라도 그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기침을 하거나 기관지염,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사소한 증상 하나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이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습관을 평소애 들여주는게 좋다.

기고

기업거래 안전망 적극 활용을



한경정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유비무환(有備無患). 준비돼 있으면 근심이 없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어쩌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라서 오히려 실천이나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점이 있는 지도 모르겠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한평생 피땀으로 일군 기업이 내 탓 아닌 남의 탓으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다. 소위 '흑자도산'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도산에 이르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각종 경고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요즘에는 IMF 외환위기가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 당시 거래처 부도로 인해 연쇄도산에 내몰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각나곤 한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기술 개발, 원가 절감, 판로개척, 자금조달 등 중요한 과제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은 내부적 역량이 나 노하우로 해결하거나 외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반면, 주요 거래처가 예상하지 못한 부도를 내고 믿었던 회사가 잠적이라도 한다면 매출채권은 회수가 어렵게 되고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경영자는 심한 배신감과 울분으로 사업의욕까지 꺾이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아마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차과감으로 인해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걱정을 줄이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일까? 매출채권보험이 해법이다. 미리 대비하고 있다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 법이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위약을 받아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후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공적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수금의 약 80%를 신보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간접지원하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매년 인수가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호남지역 매출채권보험 가입 규모도 2013년도 6913억원(283개 업체)에서 2014년 8718억원(319개 업체), 지난해 기준 현재 6519억원(330개 업체)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제도는 보험 가입 과정에

서 주요거래처의 현재 신용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는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1년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잠재적 거래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안전벨트로서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경우 대부분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거래 개시를 망설이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거래처를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두고 제품 판매를 개시한다면 거래대금 회수의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매출 성장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이 단순히 판매대금 보호를 통한 거래안전망 역할을 뛰어넘어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처를 확대하고 매출을 늘리면서도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과 CEO들이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社說

‘사상의학 체험랜드’ 예산 낭비 책임 물어야

수십억 원의 예산 지원에도 애물단지가 된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은 의혹이 한 톨이 아니다. 정실개입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 관산을 옥당리에 국비 24억원, 군비 24억원, 사업자 부담 24억원 등 72억 원을 들여 지난해 2월에 완공된 체험랜드는 2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사상의학관, 한방진료원, 아토피 체험관 같은 시설은 들어섰지만 날립공사에 운영 인력 부족으로 문도 열지 못한 채 예산만 날리고 있다.

드라마 세트장을 체험랜드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은 구상부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남도와 장흥군은 한방을 다룬 드라마 ‘신의’가 지역 특색을 살린 통합의학박물관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세트장 건설을 지원했다.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면 시설을 보완해 체험랜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내 부실로 이어졌다. 사업자가 수차례 바뀐 것

만 보아도 계획이 얼마나 무적구구적이었는지 쉽사리 감지할 수 있다.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며 국비를 내준 문화관광체육부도 뒷집이었다. 현장 사진과 영상 추진되고 있다는 지자체의 보고에만 의존하다 이용객 실적이 없자 그제야 실사에 나설 정도로 둔갑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광부는 전남도와 장흥군에 보조금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이다. 문광부의 재촉에 장흥군은 사업자에게 국비와 군비 48억 원 반납을 요구했다지만 먹혀들지 미지수다. 관련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어수룩하고 의욕부진인 체험랜드 추진에 유착은 없었는지, 허기는 적절했는가 등을 살피고 문책해야 한다. 더 불어 앞으로 체험이나 모객 관련 보조사업은 고객 유치 방안 등 수익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해 한 톨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갈등 접고 정율성 브랜드 문화자산으로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출생지를 놓고 계속됐던 시군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로 '자기 지역이 맞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갈라섰던 자치단체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 선생의 선양사업과 기념관 건립 등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극심한 대립으로 동력을 잃었던 기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광주시, 동구·남구, 화순군은 27일 광주시청에서 '정율성 선생 항일투쟁 및 예술정신 계승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이들 자치단체장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갈등의 핵심이었던 '생가'라는 용어 대신 동구 유적지, 남구 유적지, 화순 유적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고 합의했다. 그동안 동구와 남구는 정

선생의 출생지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했고 화순군은 정 선생이 능주초등학교를 다녔던 점을 들어 각기 선양사업을 벌여 왔다.

이번 합의는 늦은 감이 있지만 기념사업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정 선생은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에 투신한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중국 3대 음악가 중 한 명이다. 광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그의 발자취가 있던 곳을 즐겨 찾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마케팅과 연계한다면 지역을 떠서 살리는 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내려면 각 유적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05년 창설된 정율성 국제음악제는 그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은 국제대회로 키워야 한다. 지금은 사람이 곧 브랜드인 세상이다.

無等鼓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이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서 맥주잔을 들고 기자들을 만났다. 1997년 10월25일 한국시리즈 통산 아홉 차례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구단이 마련한 자리였다. 술을 마신 출입기자들도 불과한 얼굴로 김 감독을 인터뷰하는 흔치 않은 장면이 연출됐다. 당연히 "한국시리즈에서 9차례 우승한 비결이 뭐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 감독은 웃음을 거두고 정색한 뒤 "선수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기자들이 고개를 가우뚱하자 그는 설

승부사의 철학

명을 보냈다. "저도 사람이란데 왜 야구 잘하는 선수가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감독하는 동안 '이쁜' 선수를 편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감독실에 선수를 따로 불러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감독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팀워크가 무너집니다." 인간의 감정을 지우고 승부를 위해서만 선수단을 지휘했다는 고백이었다. 명장(名將)은 역시 다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해태의 홈구장이었던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거의 매일 출근(?)했던 기자는 김 감독과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

다. 한번은 "왜 번트 사인을 내셨어요?"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전날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리드하고 있음에도 슬러거에게 번트를 주문한 것을 꼬집는 질문이었다.

그는 눈을 흘기더니 "가자 알만 모르

는 소리 말어"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화려한 홈런이 좋아 보이지만 야구에서 가장 적극적인 공격은 번트예요. 번트 못 내는 놈은 선수 자격이 없어요."

통명스러운 대답에 무색해진 기자에게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경기는 이겨야 이긴 겁니다. 매 경기 피를

말리는 감독의 심정을 몰라서 그래요. 시즌 막판에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다투면서 승물을 놓고 할·푼·리·모까지 따지잖아요." 한국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즈가 우승을 다투고 있다. 삼성 류종일, 두산 김태형 감독은 오직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는 그라운드에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을 것이다. 한국시리즈 관전 포인트가 적지 않겠지만 감독들의 심정으로 야구를 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싶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